



미용사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 미치는 물리적 ·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

이진화 · 이복임

울산대학교 간호학과

Physical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among South Korean Hairdressers

Lee, Jinhwa · Lee, Bokim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of South Korean hairdressers. **Method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of data extracted from the 2014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conduct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For the present analysis, 920 hairdressers were selected.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a set of variables was chosen from the KWCS.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among risk factors in working place,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Results:** The prevalence of poor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was 45.1% and 36.0%, respectively. The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repetitive hand or arm movement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ental health (OR: 0.63, CI: 0.41~0.97), and ‘role clarit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presenteeism (OR: 1.86, CI: 1.10~3.13).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o improve the clarification of the role of hairdressers as a strategy to reduce their presenteeism.

Key Words: Mental health, Presenteeism, Hairdresser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미용 산업의 발전과 함께 미용사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미용사 수는 140,162명으로, 5

년 전과 비교하면 14%P 이상 증가한 수이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5). 이들 미용사의 86.3%(121,012명)는 여성이고, 99.2%(138,976명)는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며, 78.0%(109,347명)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5).

미용사는 염색, 파마(퍼머넌트), 머리를 자르는 등 고객의 모발미용에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Korea Na-

주요어: 정신건강, 프리젠티즘, 미용사

Corresponding author: Lee, Bokim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93 Daehak-ro, Nam-gu, Ulsan 44610, Korea.
Tel: +82-52-259-1283, Fax: +82-52-259-1236, E-mail: bokimlee@ulsan.ac.kr

Received: Aug 15, 2016 | **Revised:** Aug 16, 2016 | **Accepted:** Nov 6,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작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화학적, 인간공학적, 심리사회적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용사들은 샴푸, 퍼머액, 염색약, 헤어스프레이, 표백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Halliday-Bell, Gissler, & Jaakkola, 2009), 지속적으로 상완을 드는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인간공학적 문제(Lee, 2014)와 함께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시간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Kim, 2012). 또한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과 폭력과 같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도 노출된다(Halliday-Bell et al., 2009; Toerien & Kitzinger, 2007).

이와 같은 미용사의 직업적 유해요인은 다양한 건강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미용사의 직업성 질환으로는, 피부염(Khumalo, Jessop, & Ehrlich, 2006), 비염 및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Moscato et al., 2005), 근골격계질환(Bradshaw, Harris-Roberts, Bowen, Rahman, & Fishwick, 2011), 방광암, 폐암 등과 같은 암의 발생(Olsson et al., 2013) 등이 있다. 특히 미용업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많고, 이들 대부분은 가임기에 있기 때문에 조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 등 부정적인 임신 결과와 관련되어 연구되기도 하였다(Halliday-Bell et al., 2009). 국내의 경우 미용사들의 눈, 피부, 호흡기 증상(Sakong & Kim, 2013), 직무 스트레스(Kim, 2009), 정신신경학적 증상(Kim, Kim, Park, & Jung, 2002), 심리사회적 스트레스(Kim, 2012), 근골격계질환(Mo & Song, 2011), 피부염(Cho & Cho, 2015), 소화기계 건강(An, 2015), 우울(Kim, Park & Shon, 2012) 등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진이 미용사의 직업건강에 관한 국내 연구를 분석한 결과, 미용사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 유병률이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이직 의도 등 심리사회적 요인과 작업자세와 같은 인간공학적 요인이 다수 다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건강문제의 경우 근골격계질환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많다(Kim et al., 2012a).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한 미용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불건강의 원인이 되는 작업환경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용사의 작업환경 요인과 건강문제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상관관계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미용사 대상 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던 감정노동, 직장폭력과 같은 심리사회적 유해요인과 건강결과로서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에 주요한 관심을 두었다. 프리젠티즘은 보건의료이용과 결근으로 인한 작업손실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Hemp, 2004) 정신건강 또한 근로자의 근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건강문제 중 하나(Baptiste, 2008)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를 연구할 가치가 높다.

최근 미용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미용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사회적 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속에서,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을 포함하여 미용사의 작업환경과 건강 문제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용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미용사의 작업환경과 이들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 미치는 작업환경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을 조사한다.
-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 수준을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의 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용사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4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제4차 KWCS 원시자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하였다. KWCS는 전국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종, 위험요인노출, 고용안정 등 업무환경 전반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실시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8002호)이다. KWCS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취업자이다. 조사모집단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집틀로 사용하여, 16개 시도를 1차로 층화하고, 시 지역, 군 지역 등 거주 지역을 2차층으로,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의 주택유형을 3차층으로 층화하여 조사구를 추출하였다(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2013).

본 연구를 위해서 제4차 KWCS의 조사 대상자 50,007명 중 미용사 직업을 가진 997명의 자료에서 응답을 부실하게 한 77명을 제외한 920명을 최종자료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KWCS 문항은 유럽연합(EU)에서 199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럽 취업자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EWCS))의 문항을 근간으로 하였다. EWCS Report와 선행연구(Lee, 2015a; Jeon et al., 2014)를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 물리적 작업환경요인,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 미용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고용형태를 포함하였다.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은 19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물리적 작업환경요인에는 진동, 화학물질,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계속 서 있는 자세, 반복적인 손 또는 팔 동작, 장시간 근로에 노출 여부를 질문하는 6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물리적 작업환경요인 중 장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를 포함한 최대시간인 68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에는 업무 요구(매우 빠른 업무속도, 엄격한 마감시간), 업무 자율성(일의 순서, 작업 방법, 작업 속도/작업률), 조직 관계(업무 명확성), 감정적 요구(감정 숨김, 업무 중 실수에 대한 결과),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성희롱), 차별(연령, 성)에 관한 13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문항 중 5점 또는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는 문항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Low 값과 High 값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WHO-5 well-being index를 이용하였다. WHO는 정신건강을 긍정적 웰빙의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WHO-5 well-being index는 우울과 웰빙을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도구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Christian et al., 2015). 본 도구는 5개 문항으로 지난 2주간의 즐거움, 편안함, 활기참, 상쾌함, 흥미로움에 대하여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총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불건강으로, 14점 이상인 경우 건강으로 구분하였다.

프리젠티즘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건강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Hemp, 2004). 본 연구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한 일수를 조사하여 1일 이상인 경우 유경험자로 구분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 프리젠티즘 경험 여부, 일반적 특성,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 요인에 따른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을 비교하기 위해 χ^2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WCS는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하여 표본 추출하였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

연구대상 미용사의 일반적 특성과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 및 프리젠티즘 경험률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91.1%가 여성이었고, 36.0%가 40대, 25.9%가 50대이었다. 교육수준은 73.8%가 고등학교 졸업자이었고, 월수입이 100만원대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대상자 중 71.5%가 자영업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45.1%, 프리젠티즘 경험률은 36.0%였다.

2. 연구대상자의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

연구대상 미용사에게 노출되고 있는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은 Table 2와 같다.

물리적 작업환경요인을 살펴보면, 진동에 높게 노출된 비율이 39.0%, 화학물질은 36.7%였고,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는 36.2%, 계속 서 있는 자세는 51.2%, 반복적인 손 또는 팔 동작은 45.7%였다. 또한 전체 대상자의 79.8%가 68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다.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의 경우, 업무요구 영역에서 빠른 업무속도를 요구받는 대상자가 33.0%, 엄격한 마감시간을 요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847 (91.1)
	Male	73 (8.9)
Age (year)	19~29	56 (8.1)
	30~39	174 (21.9)
	40~49	341 (36.0)
	50~59	262 (25.9)
	≥60	87 (8.2)
	M±SD	44.1±16.51
Educational status	≤ Middle school	80 (7.6)
	High school	703 (73.8)
	≥ College	137 (18.6)
Income (10,000 won)	< 100	50 (5.0)
	100~199	340 (36.6)
	200~299	333 (34.6)
	≥ 300	197 (23.8)
Employment type	Self-employed	748 (71.5)
	Permanent	132 (22.3)
	Temporary	40 (6.2)
Mental health	Good	512 (54.9)
	Poor	408 (45.1)
Presenteeism	Yes	332 (36.0)
	No	588 (64.0)

n: unweighted %: weighted.

구반는 경우가 35.5%였다. 업무 자율성 영역을 살펴보면, 일의 순서에서 낮은 자율성을 가지고 근무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51.1%, 작업 방법에서 자율성이 낮은 대상자는 50.4%, 작업 속도/작업률에서 자율성이 낮은 경우는 53.0%였다. 조직관계 영역에서 업무 명확성이 낮은 근무환경에 처한 대상자가 85.4%였다. 감정적 요구 영역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근무하는 대상자는 63.4%, 업무 중 실수에 대한 결과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일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회사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발생시키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61.8%였다. 직장 내 폭력 영역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6.3%,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경험자는 1.6%, 성희롱 경험자는 0.7%였다. 연령차별을 경험한 미용사는 3.5%,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는 1.6%였다.

3. 연구대상자의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과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의 관계

연구대상 미용사의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과 프리젠티즘 경험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물리적 작업환경요인에서, 반복적으로 손 또는 팔 동작을 많

이 하는 미용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더 낮았고(40.6% vs 48.8%, $p=.024$), 68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더 높았다(46.2% vs 37.1%, $p=.026$).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에서, 업무 중 실수가 본인 및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더 높았고(48.8% vs 41.1%, $p=.044$),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을 경험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더 높았다(79.6% vs 44.7%, $p=.005$).

여성 미용사의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37.2%로 남성 미용사(24.1%)보다 더 높았다($p=.029$). 물리적 작업환경요인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미용사의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높았고(41.8% vs 32.4%, $p=.011$), 높은 수준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대상자의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높았다(42.2% vs 32.5%, $p=.009$). 작업속도에 대한 업무요구가 높은 환경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더 높았다(42.4% vs 32.9%, $p=.014$).

일의 순서(40.7% vs 30.8%, $p=.007$), 작업 방법(41.0% vs 30.7%, $p=.005$), 작업 속도/작업률(40.7% vs 30.3%, $p=.004$)에 대해 자율성이 낮은 대상자는 높은 경우에 비해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더 높았다. 업무 명확성이 낮은 경우 높은 대상자에 비해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더 높았다(47.5% vs 34.6%, $p=.024$). 언어폭력을 경험한 미용사는 미경험자에 비하여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높았고(50.1% vs 35.0%, $p=.047$),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높았다(80.2% vs 35.0%, $p=.040$).

4.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 요인

연구대상 미용사의 정신건강 수준과 프리젠티즘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복합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반복적인 손 또는 팔 동작’이었는데, 반복적인 손 또는 팔 동작을 많이 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하여 정신불건강 오즈비가 0.63이었다($p=.034$).

프리젠티즘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는 ‘업무 명확성’이었는데, 업무가 명확한 미용사는 불명확한 경우에 비하여 프리젠티즘 오즈비가 1.86이었다($p=.020$).

Table 2. Physical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in the Workplace

(N=9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Physical risk factors	Vibration	Low	563 (61.0)
		High	357 (39.0)
	Chemical substances	Low	579 (63.3)
		High	341 (36.7)
	Tiring or painful positions	Low	599 (63.8)
		High	321 (36.2)
	Standing	Low	487 (48.8)
		High	433 (51.2)
Repetitive hand or arm movements	Low	508 (54.3)	
	High	412 (45.7)	
Long working hours	< 68 hrs/wk	186 (20.2)	
	≥ 68 hrs/wk	734 (79.8)	
Job demands	Working at high speed	Low	620 (67.0)
		High	300 (33.0)
	Working to tight deadline	Low	587 (64.5)
		High	333 (35.5)
Job autonomy	Order of tasks (n=888)	Low	466 (51.1)
		High	422 (48.9)
	Method of work (n=887)	Low	464 (50.4)
		High	423 (49.6)
	Speed or rate of work (n=885)	Low	484 (53.0)
		High	401 (47.0)
Social relationships	Role clarity (n=800)	Low	103 (85.4)
		High	697 (14.6)
Emotional demands	Hiding feelings (n=802)	Low	538 (63.4)
		High	264 (36.6)
	Consequences of mistakes (n=872)	Low	512 (61.8)
		High	360 (38.2)
Workplace violence	Verbal Violence (n=917)	No	864 (93.7)
		Yes	53 (6.3)
	Threats and humiliating behaviour (n=916)	No	905 (98.4)
		Yes	11 (1.6)
	Sexual harassment (n=903)	No	897 (99.3)
		Yes	6 (0.7)
Discrimination	Age discrimination (n=917)	No	893 (96.5)
		Yes	24 (3.5)
	Sex discrimination (n=919)	No	907 (98.4)
		Yes	12 (1.6)

n: unweighted %: weighted.

논 의

1. 미용사의 정신불건강 유병률 및 프리젠티즘 경험을

연구대상 미용사의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45.1%였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 (2015a)의 연구에서 제시

된 우리나라 대인서비스 종사자의 정신불건강 유병률(39.6~43.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유럽 3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EWCS 결과, WHO-5 well-being index로 측정된 서비스직 근로자의 평균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21%인 것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Eurofound, 2012). 미용사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연구로는, 지난 2주 이상 우울증상이 지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Mental Health, and Presenteeism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ntal Health		Presenteeism	
			Poor	χ^2 (p)	Yes	χ^2 (p)
			n (%)		n (%)	
Physical risk factors	Vibration	Low	252 (44.5)	0.201	185 (32.4)	8.060
		High	156 (46.0)	(.687)	147 (41.8)	(.011)
	Chemical substances	Low	257 (42.8)	3.169	187 (32.5)	8.299
		High	151 (49.0)	(.101)	145 (42.2)	(.009)
	Tiring or painful positions	Low	281 (46.5)	1.405	212 (34.2)	2.381
		High	127 (42.4)	(.288)	120 (39.3)	(.169)
	Standing	Low	221 (46.6)	0.763	174 (36.1)	0.003
		High	187 (43.6)	(.427)	158 (36.0)	(.964)
	Repetitive hand/arm movements	Low	236 (48.8)	6.088	172 (34.1)	1.806
		High	172 (40.6)	(.024)	160 (38.4)	(.226)
Long working hours	< 68 hrs/wk	69 (37.1)	4.967	73 (39.2)	1.010	
	≥ 68 hrs/wk	339 (46.2)	(.026)	259 (35.3)	(.315)	
Job demands	Working at high speed	Low	286 (47.6)	4.613	212 (32.9)	7.658
		High	122 (40.0)	(.055)	120 (42.4)	(.014)
	Working to tight deadline	Low	267 (46.4)	1.133	216 (35.9)	0.015
		High	141 (42.7)	(.336)	116 (36.3)	(.913)
Job autonomy	Order of tasks	Low	199 (43.3)	0.659	182 (40.7)	9.120
		High	190 (46.0)	(.456)	135 (30.8)	(.007)
	Method of work	Low	204 (44.9)	0.016	183 (41.0)	9.850
		High	185 (44.5)	(.909)	134 (30.7)	(.005)
	Speed or rate of work	Low	204 (43.8)	0.225	188 (40.7)	10.113
		High	183 (45.4)	(.665)	127 (30.3)	(.004)
Social relationships	Role clarity	Low	48 (42.8)	3.449	48 (47.5)	6.832
		High	297 (52.3)	(.103)	240 (34.6)	(.024)
Emotional demands	Hiding feelings	Low	233 (42.9)	0.821	189 (36.5)	0.002
		High	113 (46.3)	(.423)	100 (36.6)	(.966)
	Consequences of mistakes	Low	222 (41.1)	4.756	168 (33.0)	3.476
		High	154 (48.8)	(.044)	138 (39.4)	(.093)
Workplace violence	Verbal Violence	No	379 (44.0)	8.420	301 (35.0)	4.957
		Yes	29 (64.0)	(.006)	29 (50.1)	(.047)
	Sexual harassment	No	388 (44.2)	1.784	313 (35.0)	5.058
		Yes	5 (71.4)	(.281)	5 (80.2)	(.040)
	Threats/humiliating behaviour	No	401 (44.7)	7.090	323 (35.7)	0.825
		Yes	7 (79.6)	(.005)	6 (47.6)	(.442)
Discrimination	Age discrimination	No	392 (44.3)	4.037	317 (35.5)	2.746
		Yes	14 (62.5)	(.092)	13 (50.2)	(.181)
	Sex discrimination	No	402 (44.9)	0.637	327 (36.1)	0.519
		Yes	6 (55.5)	(.515)	4 (27.1)	(.543)

n: unweighted %: weighted.

속되었다는 미용사의 비율이 23.2%라는 Kim 등(2012a)의 연구가 있다. 또한 CES-D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미용사의 우울을 연구한 Kim 등(2012b)은 유병률을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평

균값이 25.4점으로 가벼운 우울상태에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연구대상 미용사들의 프리젠티즘 경험률은 36.0%이었는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프리젠티즘 경험률이 21.7%라는

Table 4. The Results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ntal health		Presenteeism	
			OR (95% CI)	<i>p</i>	OR (95% CI)	<i>p</i>
Physical risk factors	Vibration	Low	ref.	.962	ref.	.052
		High	0.99 (0.69~1.43)		1.45 (1.00~2.10)	
	Chemical substances	Low	ref.	.325	ref.	.258
		High	1.20 (0.83~1.74)		1.24 (0.85~1.82)	
	Tiring/painful positions	Low	ref.	.738	ref.	.240
		High	0.94 (0.65~1.37)		1.26 (0.86~1.87)	
	Standing	Low	ref.	.389	ref.	.659
High		1.20 (0.79~1.81)		0.90 (0.60~1.45)		
Repetitive hand/arm movements	Low	ref.	.034	ref.	.818	
	High	0.63 (0.41~0.97)		1.06 (0.65~1.74)		
Long working hours	< 68 hrs/wk	ref.	.126	ref.	.231	
	≥ 68 hrs/wk	2.34 (0.31~0.77)		0.75 (0.47~1.20)		
Job demands	Working at high speed	Low	ref.	.287	ref.	.164
		High	0.78 (0.48~1.24)		1.44 (0.86~2.39)	
	Working to tight deadline	Low	ref.	.542	ref.	.406
		High	0.87 (0.55~1.37)		0.81 (0.48~1.34)	
Job autonomy	Order of tasks	High	ref.	.224	ref.	.284
		Low	1.51 (0.78~2.92)		0.69 (0.35~1.37)	
	Method of work	High	ref.	.138	ref.	.781
		Low	0.60 (0.31~1.18)		0.91 (0.47~1.77)	
	Speed or rate of work	High	ref.	.494	ref.	.908
		Low	1.22 (0.69~2.13)		1.03 (0.60~1.78)	
Social relationships	Role clarity	Low	ref.	.309	ref.	.020
		High	1.29 (0.79~2.12)		1.86 (1.10~3.13)	
Emotional demands	Hiding feelings	Low	ref.	.552	ref.	.821
		High	1.12 (0.77~1.62)		0.95 (0.63~1.44)	
	Consequences of mistakes	Low	ref.	.123	ref.	.221
		High	1.32 (0.93~1.88)		1.27 (0.87~1.85)	
Workplace violence	Verbal Violence	No	ref.	.483	ref.	.319
		Yes	1.34 (0.59~3.07)		1.53 (0.66~3.56)	
	Sexual harassment	No	ref.	.773	-	-
		Yes	1.37 (0.16~11.56)		-	
	Threats/humiliating behaviour	No	ref.	.195	ref.	.789
		Yes	3.78 (0.51~28.24)		0.78 (0.13~4.77)	
Discrimination	Age discrimination	No	ref.	.666	ref.	.145
		Yes	1.33 (0.37~4.80)		2.67 (0.71~10.00)	
	Sex discrimination	No	ref.	.222	ref.	.464
		Yes	0.41 (0.10~1.73)		0.50 (0.08~3.19)	

OR=Odds Ratio, CI=Confidential Intervals.

With adjust for age, gender, educational status, income and employment type.

Cho, Park, Lee, Min과 Baek (201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미용사의 프리젠티즘 경험률 또한 타 근로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미용사의 높은 정신불건강 유병률 및 프리젠티즘

경험률의 원인은 하루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작업조건, 식사시간이 거의 없거나 매우 불규칙한 것, 장시간 근로와 휴가 일수의 부족, 휴식공간의 부재, 낮은 급여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2a).

2.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과 정신건강수준

연구대상 미용사의 정신건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요인으로서,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반복적인 손과 팔의 동작이었다. 미용사들은 손과 팔을 어색한 자세로 유지한 채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다(English et al., 1995). 이러한 어색한 자세는 주로 수근관증후군, 건염,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관련하여 연구되었고(Bradshaw et al., 2011), 어색한 자세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손과 팔의 동작이 적은 것이 정신불건강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사의 직위 차이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즉, 보조미용사 보다는 실장이나 메니저급의 미용사들은 좀 더 고객의 헤어에 대한 책임감이 높기 때문에 드라이, 샴푸, 염색, 컷트 등의 작업에서 손과 팔의 반복동작이 많을 수 있다. 손과 팔의 반복동작이 상대적으로 많은 실장이나 메니저급, 원장급 미용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일반 보조미용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비해 낮기 때문에(Kim et al., 2012b) 정신건강수준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미용사의 직위에 따라 정신건강수준의 차이는 Kim (2012)의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스태프와 중상의 직위를 가진 미용사에 비해, 디자이너, 실장, 원장의 직위에 있는 미용사의 정신건강 수준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에서 고객으로부터의 언어폭력과 위협 경험, 장시간 근로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09명의 두발미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Kim 등(2012a)의 연구는 최근 한 달간 폭력경험이 있는 경우 우울 증상의 위험이 3.07배 높아짐을 밝혔다. 본 연구의 다변량 분석에서 폭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표출법의 차이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KWCS 자료는 다단계 층화표출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외적타당도를 높이는데 주력한 반면, Kim 등(2012a)의 연구는 편의표출을 통해 관계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즉 Kim 등(2012a)의 연구는 관련 협회 등을 통한 편의표출로 설문대상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건강문제나 작업환경에 관심이 높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다수 포함되어 폭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본 연구대상자의 언어폭력(6.3%) 및 위협/굴욕적 행동(1.6%) 경험률은 Kim 등(2012a)의 연구대상자 경험률(각각 21.0%, 17.3%)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장시간 근로를 하는 미용사의 정신불건강 유병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KWCS 자료를 이용한 Lee (2015a)의 연구에서도, 장시간 노동이 심리적 불건강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용사의 일평균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 점수가 나빠진다는 Kim (2012)의 보고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최근 근로시간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추세를 살펴보면, 장시간 근로보다는 근로자가 원하는 수준에 비해 많거나 적은 근로시간에 좀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Otterbach, Wooden과 Fok (2016)는 절대적으로 긴 근로시간 보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보다 길거나 짧은 근로시간이 특히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좀더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를 통해 미용사의 장시간 근로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 원하는 근로시간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물리적·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과 프리젠티즘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에서 연구대상 미용사의 프리젠티즘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작업환경요인은 업무의 불명확성이었다. 본 연구결과 업무의 불명확성이 높아지면 프리젠티즘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Zhou, Martinez, Ferreira와 Rodrigues (2016)는 업무의 불명확성이 프리젠티즘과 관련된 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거나, 전직하거나,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역할 불명확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긴장이나 근로자간 갈등이 프리젠티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

Hansen과 Andersen (2008)는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간적 압박, 회사 통제, 동료와의 팀워크, 사업장 규모, 사회적 지지, 직업 안전성과 같은 작업 관련 요인과 경제적 상태, 결혼여부, 교육정도, 근무연수, 고용형태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변량 분석에서만 프리젠티즘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인 변수는 진동, 화학물질, 작업속도, 자율권, 언어폭력과 성폭력 경험이었다. 수동공구에서의 진동, 염색약과 같은 화학물질 등 물리적 유해인자에의 노출은 근로자의 프리젠티즘 경험율을 높일 수 있다(Lee, 2014). 작업속도에 대한 요구, 즉 시간에 대한 압박은 근로자가 몸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Hansen & Andersen, 2008). 또한 직무에 대한 회사의 통제가 심할수록, 다시 말해 업무자율권이 낮을 때 근로자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출근하게 된다(Hansen & Andersen, 2008). 미용사는 장시간 동안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Kim et al., 2012a) 고객으

로 부티의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을 경험하기 쉽다. 폭력,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은 프리젠티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KWCS 자료를 이용하여 프리젠티즘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Cho 등(2016)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 프리젠티즘 위험성이 1.92배, 성희롱이 있는 경우 2.90배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프리젠티즘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생산성,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가져 오는 중요한 문제인 바(Hemp, 2004) 미용사의 프리젠티즘을 줄이기 위한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작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의 참여, 고객으로 부티의 폭력 예방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감정노동, 직장폭력과 같은 심리사회적 유해인자와 미용사의 정신건강과 프리젠티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시도되었으나, 다변량 분석 결과 감정노동, 직장폭력, 차별은 미용사의 정신건강 및 프리젠티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의 오류, 기억의 오류, 표집의 오류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했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특별히 교육, 의료 등과 같은 돌봄산업에서 감성숙임이나 감정요구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위험인자의 폭로는 질병 프리젠티즘의 위험을 높힐 수 있다(Hansen & Andersen, 2008). 또한 미용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과 폭력의 경험은 우울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im et al., 2012a). 국내 대인서비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언어폭력, 성희롱, 감정노동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인자와 근로자 건강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잘 설계된 연구가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미용사의 정신건강 수준과 프리젠티즘 경험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물리적, 심리사회적 작업환경요인을 분석하고자 KWCS 원시자료 중 미용사 92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연구대상 미용사의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45.1%, 프리젠티즘 경험률은 36.0%였다. 둘째, 반복적인 손과 팔의 동작이 적은 것이 정신불건강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업무의 불명확성이 높으면 프리젠티즘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 미용사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다룬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차기 연구를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좀더 발전된 연구를 위해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미용사의 작업환경요인 및 건강문제를 연구할 때에는 직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절대적인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불일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정노동, 폭력, 성희롱, 차별 등에 관한 조사 시 오류를 줄이고 솔직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으로부터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제공받아 수행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FERENCES

- An, H. (2015). The research on the factors influenced on the cosmetologists' health of digestive system.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9(4), 37-56.
- Baptiste, N. R. (2008). Tightening the link between employee well-being at work and performance: A new dimension for HRM. *Management Decision*, 46(2), 284-309.
<http://dx.doi.org/10.1108/00251740810854168>
- Bradshaw, L., Harris-Roberts, J., Bowen, J., Rahman, S., & Fishwick, D. (2011). Self-reported work-related symptoms in hairdressers. *Occupational Medicine*, 61, 328-334.
<http://dx.doi.org/10.1093/occmed/kqr089>
- Cho, Y-S., Park, J. B., Lee, K-J., Min, K-B., & Baek, C-I. (2016). The association between Korean workers' presenteeism and psychosocial factors within workplace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8, 41.
<http://dx.doi.org/10.1186/s40557-016-0124-1>
- Cho, Y-M., & Cho, J-H. (2015).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occupational allergic contact dermatitis of hairstyl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1(3), 564-574.
- Christian, W. T., Søren D. Ø., Susan, S., & Per, B. (2015). The WHO-5 Well-Being Index: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84, 167-176.
<http://dx.doi.org/10.1159/000376585>
- English, C. J., Maclaren, W. M., Court-Brown, C., Hughes, S. P., Porter, R. W., Wallace, W. A., et al. (1995). Relations between upper limb soft tissue disorders and repetitive movements at work.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7(1), 75-90.
<http://dx.doi.org/10.1002/ajim.4700270108>

- Eurofound. (2012). Health and well-being at work: A report based on the fifth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ublin, Ireland: Author.
- Halliday-Bell, J. A., Gissler, M., & Jaakkola, J. J. K. (2009). Work as a hairdresser and cosmetologist and adverse pregnancy outcomes. *Occupational Medicine*, 59, 180-184. <http://dx.doi.org/10.1093/occmed/kqp017>
- Hansen, C. D., & Andersen, J. H. (2008). Going ill to work - What personal circumstances, attitudes and work-related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ickness presenteeism.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7, 956-964. <http://dx.doi.org/10.1016/j.socscimed.2008.05.022>
- Hemp, P. (2004). Presenteeism: At work - But out of it. *Harvard Business Review*, 82(10), 49-58.
- Jeon, S. H., Leem, J. H., Park, S. G., Heo, Y. S., Lee, B. J., Moon, S. H., et al. (2014). Association among working hours, occupational stress, and presenteeism among wage workers: Results from the Second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6(6), 1-8. <http://dx.doi.org/10.1186/2052-4374-26-6>.
- Khumalo, N. P., Jessop, S., & Ehrlich, R. (2006). Prevalence of cutaneous adverse effects of hairdressing: A systematic review. *Archives of Dermatology*, 142, 377-383.
- Kim, C. I. (2012).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sociopsychological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some hairdress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 Kim, I. H., Kim, C. N., Cho, G. H., Kim, H. S., Hwang, J. H., Choi, S. Y., et al. (2012a). *A survey on exposure risks, injury experiences and health problems of beauty industry workers*. Uls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 Kim, M. (2009). Study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job stress and working behavior on estheticians.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 Cosmetology*, 7(2), 1-10.
- Kim, M. Y., Park, J. B., & Sohn, A. (2012b). Effect on depression of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drinking behavior among skin care exper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1(1), 133-141.
- Kim, S.-A., Kim, E.-J., Park, W.-S., & Jung, S. H. (2002).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female hairdresser's neuropsychiatric symptoms due to chronic organic solvent exposur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14(1), 13-22.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The 6th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Daejeon: Author.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5).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Daejeon: Author.
- Lee, B. (2015a).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working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Interactive Service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2), 132-141. <http://dx.doi.org/10.5807/kjohn.2015.24.2.132>
- Lee, S. (2015b).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time, workers' health, and productivity*. Seoul: Korea Labor Institute.
- Lee, S. (2014). *A study on the factors causing presenteeism of the workers in South Korea - Focus on analysis of job classification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Mo, J.-H., & Song, M. R. (201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working posture and environment estheticians on musculoskeletal disea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7(3), 241-249.
- Moscato, G., Pignatti, P., Yacoub, M.-R., Romano, C., Spezia, S., & Perfetti, L. (2005). Occupational asthma and occupational rhinitis in hairdressers. *Chest*, 128, 3590-3598. <http://dx.doi.org/10.1378/chest.128.5.3590>.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3). *The using guideline of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Ulsan: Author.
- Olsson, A. C., Xu, Y., Schüz, J., Vlaanderen, J., Kromhout, H., Vermeulen, R., et al. (2013). Lung cancer risk among hairdressers: A pooled analysis of case-control studies conducted between 1985 and 2010.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8(9), 1355-1365. <http://dx.doi.org/10.1093/aje/kwt119>
- Otterbach, S., Wooden, M., & Fok, Y. K. (2016). *Working-time mismatch and mental health*. IZA Discussion Paper No. 9818.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viewed 11 August 2016. <http://apo.org.au/node/62883>
- Sakong, J., & Kim, M.-B. (2013). Prevalence of ocular, dermatologic, and respiratory symptoms in hairdressers of Gumi cit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Beauty and Art*, 14(3), 147-165.
- Toerien, M., & Kitzinger, C. (2007). Emotional labour in action: Navigating multiple involvements in the beauty salon. *Sociology*, 41(4), 645-662.
- Zhou, Q., Martinez, L. F., Ferreira, A. I., & Rodrigues, P. (2016). Supervisor support, role ambiguity and productivity associated with presenteeism: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2016), 3380-3387. <http://dx.doi.org/10.1016/j.jbusres.2016.02.006>